

광주권 여성기업 지난해 매출 평균 30억 '꿀찌'

중기부 '여성기업 실태조사'...광주·전라 코로나 이후 매출 13% ↓ 광주권 업력 12.6년...사회적기업 인증 비중 5.6% 전국 2배 수준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광주·전라·제주권 여성기업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13% 감소하며 7개 권역 꿀찌로 주저앉았다. 광주권 여성기업 업력은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비중이 높았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21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라·제주 매출액 5억원 이상 여성기업의 2020년 기준 기업체당 평균 매출은 30억6000만원으로, 전년(35억1700만원)보다 13.0%(-4억5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8.9%(42억7000만원→38억3300만원)를 웃돌았다.

2020년 기준 광주권 여성기업 매출은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평균 매출은 서울이 4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1억), 부산·울산·경남(40억7200만원), 대전·세종·충청(38억6800만원), 대구·경북·강원(33억8600만원), 인천(31억7400만원), 전라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8억3300만원으로, 광주권은 7억7300만원 가량 뒤졌다.

광주권 여성기업들의 평균 당기순이익도 1억

24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2.6%(-2800만원) 급감했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1900만원이었는데, 대전·세종·충청(1억6400만원), 경기(1억3700만원), 대구·경북·강원(1억3300만원), 부산·울산·경남(1억1200만원), 서울(1억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권역은 광주·전라·제주(9600만원)와 인천(3300만원) 2곳이었다.

여성기업들의 평균 기업연령(업력)은 11.3년으로, 광주권(12.6년)은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업력이 길었다.

대구권 12.2년, 부산권 12.1년, 대전권 11.6년, 서울 11.2년, 경기·인천 각 10.1년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제주권 업력 6103개 사례를 살펴보면 4곳 중 1곳꼴(24.8%)로는 6~10년 업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어 '11~15년'(18.3%), '16~20년'(16.1%), '21년 이상'(15.1%), '4~5년'(14.8%), '2~3년'(10.1%), '1년 이하'(0.8%) 순으로 많았다.

■ 권역별 여성기업 평균 매출 <단위:억>

서울	41억3000만
경기	41억
부산·울산·경남	40억7200만
대전·세종·충청	38억6800만
대구·경북·강원	33억8600만
인천	31억7400만
전라권	30억6000만

*연매출 5억원 이상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광주권 여성기업의 53.0%는 인증기업이었다. 이들 인증기업의 65.2%는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소기업(23.8%)과 중기업(16.9%)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벤처기업과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은 각각 5.2%, 2.1%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권 여성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비중은 5.6%이었는데, 전국 평균 2.6%의 2배 수준이었으며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권 여성기업의 대표자 연령은 평균 54.8세로, 전국 평균(54.5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50대가 45.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24.2%, 30대 23.3%, 20대 2.6% 순이었다.

광주권에서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여성기업 중 2020년 연구개발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은 5.4%

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중 8.9%에도 턱없이 못 미쳤다.

광주권 여성기업들의 평균 투자액은 1억6000만원이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8.7%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낮았지만, 투자를 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 3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9일~10월31일 4만 7391개 사례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여성 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복수 응답)은 마케팅이 44.0%로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경영자 자질향양(24.0%), 기업가정신 등 리더십 교육(23.1%), 재무 및 금융투자 교육(20.2%) 등 순이었다.

여성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복수 응답)는 판매선 확보 및 마케팅 관리(48.6%), 자금조달(35.5%), 인력확보(25.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기업 고용인력은 49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6%다.

여성기업이 느낀 경영상 차별대우에 대한 경험은 1.6%로 2년 전 조사(3.2%) 때보다 적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혁신 스타트업 육성 100억원 규모 70여 팀 선정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2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팀)을 모집한다.

올해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은 5개 사업 100억원 규모로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초기창업육성 프로그램, 창업도약 프로그램, 창업제도전 프로그램, 콘텐츠 액셀러레이팅 지원으로 구성됐다.

아이디어융합팩토리는 예비 창업자 아이디어가 프로토타입 개발, 초기 사업화를 통해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초점을 맞췄다. 아이디어 사업화, 예비 창업팀 2개 분야에 총 70여 팀을 선정한다. 특히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은 총 33억 원 규모로,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도약기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총 29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 비즈니스 창출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견인할 스타트업을 선정해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제도전 프로그램은 총 9억 원 규모로 3년 이내의 재창업 스타트업에 최대 7000만 원을, 콘텐츠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 3개사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OFC 2022 공동관 참가 글로벌 광통신 시장 개척

광융합산업체 24사와 운영 412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 최대 광통신전시회에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진흥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미국 최대 광통신전시회 'OFC 2022'에 국내 광융합산업체 24개사와 함께 공동관(사진)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광융합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여 1612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41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OFC 2022 공동관 참가기업 ㈜레진저스는 글로벌 광통신기업인 'COSTEL'과 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초소형·고용량 광모듈 제품 'COBO'의 공급을 위한 150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참여기업인 해상씨앤씨는 멕시코 바이어를 초청해 총 13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지오씨도 남미 바이어사와 30만 달러의 추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진흥회는 엄격한 선정평가를 통해 선발된 24개사를 대상으로 전시부스비 및 공사비용(90%), 현지 통역, 입국 전 PCR 검사비용 등 참여기업의 편의를 제공했다.



앞서 진흥회는 2020년부터 운영중인 '365 비대면 종합상황실'을 통해 공동관 참여기업과 현지 해외바이어간 추가 온라인 상담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2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11월 열리는 '제20회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해당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참여기업의 추가 수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광융합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공동관 참가를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맞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체의 맞춤형 해외마케팅지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 가입자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이달까지 연구과제 공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달 말까지 외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회째 진행되는 외부 연구과제는 연금제도 관련 전반적 발전방안과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응모 자격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물론 국내 관련 분야의 대학(교)·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연구분야로는 ▲사학연금제도 개선 및 제

정건전성 제고방안 ▲사학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강화방안 ▲기타 사학연금제도운영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 주제로 응모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시니어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관련 연구과제도 함께 접수받고 있다.

1~2차 심사를 통해 다음달 초 연구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연구자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연구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tp.or.kr) '사학연금 연구 외부연구지원 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무항생제 녹색한우 1000만원 판매고

온라인 지역센터 생방송 판매 효과

생방송 판매를 벌이는 '전남농협 온라인 지역센터'가 15일 '무항생제 녹색한우' 제품 1000만원 판매고를 올렸다.

이날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무안군 삼향읍 지역 본부에 마련된 '온라인 지역센터'에서 나주 '무항생제 녹색한우' 한우고기와 나주곰팡이를 생방송 판매했다고 밝혔다.

농협 전남본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센터 문을 열고 농민에게 높은 '온라인 진출벽'을 낮추기 위해 상품 할인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최고 품질 1++ 등급과 1+의 불고기·국거리·양지이다. 가정간편식으로 만든 나주곰팡도 함께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시중가보다 27~38% 할인된 가격에 선보였다. 판매 실적은 1000만원을 기록했다.

생방송 중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최저 가격 급락을 겪고 있는 양파 10kg를 증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상업부지, 땅

신안동,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투자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33평, 사무실 전용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오피스텔 부지

대인동, 156평,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